해남군 명품 농업 육성 틈새시장 공략 나선다

해남군이 농수산물 산업의 틈새를 공략하는 '농업블루오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해남군은 내년 3월 농수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해 유통부문 수익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 농협, 수협장, 생산자단체 등 16명으로 유통회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0억 8천여만 원의 출자금을 확보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시범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출자금 30억 확보, 내년 3월 유통회사 설립

'블루오션 프로젝트'…2015년 매출액 1천억

군은 조만간 대표이사를 공모하고 설립추진위 참여자 등으로 발기인을 구성한 다음 내년 3월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8월 시행한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농수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할 경우 2015년에는 총 매출액만 1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군은 또 친환경 고소득 농수산물의 육성과 함께 해외 수출 확대 및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과의 업무 협력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1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경지 면적의 27%인 9천35ha까지 확대하고, 해남 특산품인 쌀, 고구마, 배추, 김 등에 대한 품질 고급화와 지리적 표시제 등을 통해 명품 농수산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독려하는 판로 다변화도 모색된다.

군은 최근 해남 고구마 8t이 네덜란드 현지 수입업체인 코스모폴리탄 프롭스사에 수출됨에 따라 앞으로 겨울 배추를 활용한 김치 등 가공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농수특산물을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몸값도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전통술 전문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와 업무협약을 맺은 해남군은 냉이술을 포함해 전통 곡주에 대한 원료 곡을 확대 공급하고, 해남에서 냉이술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배상면주가에서 지난해부터 해남의 냉이와 쌀로 만들어 판매해 온 '땅끝마을 냉이술'을 확대 생산해 지역 특산주로 육성하는 한편 '전통술 갤러리'를 건립해 가양주 교육과 함께 체험프로그램 등도 운영키로 했다.

해남군은 최근 이 같은 농수산 분야 육성 정책으로 전남도내에선 유일하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해남황토고구마·감자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 프로젝트 사업 ▲신 소득작목 개발 분야 등 2개 분야가 선정돼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영농비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선진적인 농업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마라톤 지난 9일 '제6회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1천여 명의 건각들이 가을빛이 완연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달리고 있다. 담양군 주최, 담양마라톤클럽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5㎞·10㎞·하프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위직량기자 jrwi@

시설원예 '지열 난방' 보급

전남도농기원 298억 들여 28개소 설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地熱) 난방'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비 179억을 포함 29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1개 시설원예단지 28개소(25ha)에 지열난방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설은 지하 3m의 땅속에 파이프를 매설하는 '축열식 수평형' 등이 있으며 경유 사용에 대비해 최대 78%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9월 ℓ당 660원에서 올 9월에는 1천130원으로 1.7배가 인상되는 등 오이와 풋고추, 장미 등 일부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유류대가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시설채소 면적 4천679ha중 난방을 해야 할 가온(加溫) 면적은 42%인 1천942ha에 달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화순에 양·한방 협진 암 센터

내평리에 400억원 들여 200 병상 규모

화순에 양·한방 협진(協診) 암 연구 진료센터가 세워진다.

화순군은 화순읍 내평리 일원에 200 병상 규모의 양·한방 협진 연구 진료센터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각종 암 정복에 나선다.

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는 연구 진료센터의 부지는 1만9천835㎡, 건물 연면적은 5천767㎡ 규모로 진료실과 병동 입원실을 비롯, 연구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화순군은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 사업에 착수한 뒤 2010년부터 3년간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녹십자 백신공장이 이미 준공된 데다 내년에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건립되고, 201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완전 이전하면 국내 최초로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 전남대병원과 전남지역 암센터, 녹십자 백신공장,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한 양·한방 협진 인프라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친환경 강진쌀' 2천가마 북송길

강진 주민들의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청자골 강진쌀이 10일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 〈사진〉

강진군은 이날 군청 앞 광장에서 황주홍 군수와 이삼현 군의회 의장, 관내 5개 종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쌀 북한보내기' 출발행사를 개최했다. 북한에 보내진 강진쌀은 25t트럭 2대분, 2천가마로 지난 6월초부터 강진군 등 각 기관과 사회단체, 주민 등이 모금한 8천만원으로 마련했다. 강진쌀은 11일 오전 개성시 봉동역에서 북한에 전달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성군 땅두릅 가공식품 개발 본격화

시제품 호응…분말 식품 만들고 브랜드화 추진

장성군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땅두릅 가공식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13회 장성백양단풍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2천여명을 대상으로 땅두릅 가공식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7%가 맛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땅두릅 먹을거리의 상품화 가능성에 대해 83.9%의 관광객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장성군은 단풍 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땅두릅 절임식품을 비롯, 분말을 사용한 빵과 쿠키, 떡, 국수, 냉동식품 등 30여종의 식품을 전시해 맛과 상품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땅두릅은 초봄에 연한 잎은 나물로 데쳐 먹고 뿌리는 신경통에 효험이 있어 한약재로 쓰이고 있으나 다 자란 잎은 거칠어 식용으로 먹기 힘들었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는 잎을 분말로 만들어 가공식품을 만들었고 '흙두릅'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도 추진 중이다.

백양사 인근 산에 주로 자라는 땅두릅의 집단 재배도 성공해 현재 2.5ha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다. 장성군은 땅두릅 절임식품을 비롯해 제품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광주 등 인근 대도시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완도 물김 올 첫 위판 60㎏들이 900포대

완도산 물김이 올 들어 첫 위판됐다.

완도군 수협 군외지소는 지난 10일 당인리 위판소에서 60㎏ 들이 물김 900포(2천200여만원 상당)를 위판했다.

이날 위판된 물김은 군외면 당인리·삼두리·갈문리, 흑일도, 노화도, 넙도 등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완도군수협 관내는 현재 100여 호에서 김발 2만 책을 시설, 생산하고 있다. 한편 완도 김은 한때 대일수출이 활발하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수출길이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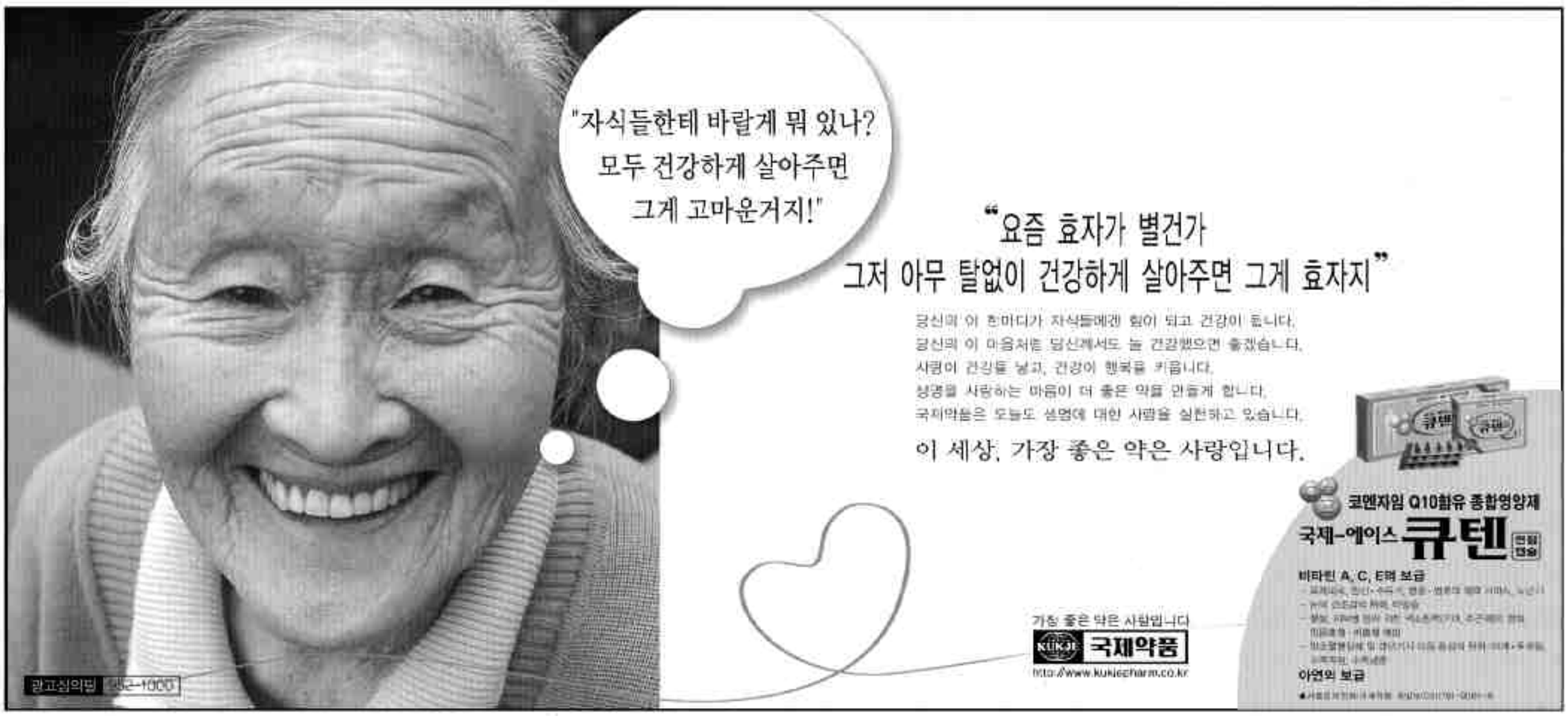
곡성 시니어클럽 생활도예 생산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특별상

곡성 시니어클럽(관장 김년두 전남과학대학교수)이 지난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시니어클럽 주최 '제 2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날 대회에는 유영학 보건복지부차관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최창식 서울특별시 부시장,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이순재 홍보대사를 비롯해 한국시니어클럽 회원 3천500여명이 참석했다.

곡성 시니어클럽은 이방균(84) 선생의 지도로 백자와 청자, 천목유 다기세트 등 생활용기를 생산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 시니어클럽은 우암학원

이 지난 2002년 설립했으며 그동안 생활도예, 유기농채소재배, 복분자, 우리콩, 고추재배, 묘목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